



전주대, '걸어서 유교문화 속으로' 성료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센터장 서정화)는 지난 25~26일 도민 30여 명과 함께 '걸어서 유교문화 속으로' 프로그램을 성공리에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답사와 강연 청취를 통해 유교문화의 진속도를 제고하고, 유교문화의 지역적 특성을 이해하며, 다른 지역 유교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하기 위해 기획됐다.

첫날은 한국의 대표 민간정원인 소쇄원, 김윤해 선생의 나주 벽류정, 다산 정약용의 학문이 열매를 맺은 다산초당과 백련사를 들렀고, 둘째 날은 추사 김정희와 원곡 이광사의 필적이 남아 있는 대흥사, 나주의 객사인 금성관과 나주향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필암서원, 신말주가 정계를 떠나 세운 귀래정을 방문했다. 또한 박래호 장성유림회장의 강의를 통해 장성을 비롯한 호남 유교문화의 형성과 전개 양상을 청취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재식 씨는 "이번 답사에서 호남 유교문화의 정수를 체감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앞으로도 호남의 유교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꼭 참석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부안 재향군인회, 2024년 안보현장 견학 진행

부안군 재향군인회(회장 김동선)에서는 최근 제72주년 재향군인의날을 기념으로 '2024년 안보현장 견학'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부안향군 회원, 임직원, 여성회원들이 천안독립기념관 및 청남대를 둘러 보고 애국선열들의 독립정신과 역사 정보를 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김동선 회장은 "우리 향군이 안보 현장 견학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 최대 안보단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자"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무주자봉센터 봉트리 봉사단, 이불 나눔 실천

(사)무주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강우)는 28일 지역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봉사자들을 활용한 맞춤형 재능나눔 프로그램 봉트리 봉사단이 직접 만든 이불을 무주관내 시립 한마을 요양원과, 방주요양원에 각각 30개씩 전달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봉트리 봉사단은 지역에서 재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봉사단으로 박숙희의 9명이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로 제28회 무주 반딧불축제에 폐현수막을 활용한 앞치마를 만들어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오염 예방에 앞장서서 친환경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도 하였다.

봉트리 봉사단 박숙희 회장은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우리가 만든 이불로 쾌적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편안한 잠자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고 또 우리의 재능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재능을 기부하겠다"고 하였다.

(사)무주군자원봉사센터 이강우 이사장은 "우리 지역에도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이 재능을 가진 분들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원봉사와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 하겠다"고 하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대 기술지주회사, 글로벌 시장 개척 '성과'

CNR코스메틱스, 인도 8rees ventures Pvt Ltd 와 30만 달러 화장품 수출 계약

지난 23일 CNR코스메틱스(주)(대표 옥승찬, 이하 CNR)가 인도의 8rees ventures Pvt Ltd(대표 Kamal Sharma)와 3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28일 전주대에 따르면 이 학교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인 CNR코스메틱스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옥승찬 대표가 창립한 화장품 브랜드로, 자체 연구개발(R&D)을 통해 스킨케어와 뷰티 제품을 생산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화장품 기업이다.

또한, 혁신적인 패키지 디자인과 차별화된 제품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번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뤘다.

특히, 이번 계약은 출산을 경험한 어머니들을 위한 울인원 라인과 전주 특산품 모주를 활용한 미백 라인 등 다양한 제품군을 포함하고 있으며, CNR의 대표 브랜드 'THE C' 전 제품이 인도뿐만 아니라 8rees의 지사가 있는 호주, 싱가포르, 두바이에도 출시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Kamal Sharma 대표는 "8rees ventures는 인도의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며 "CNR의 뛰어난 제품력, 기술력, 그리고 브랜드 가치는 8rees의 성장 전략과 일치하며, CNR을 자사의 핵심 파트너로 평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주대학교 기술지주회사는 2019년 9월 설립해 현재 27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제79회 교정의 날 기념... 전주교도소, 환경정화 봉사 나서

위문 활동도 펼쳐... 주민 큰 호응

전주교도소(소장 안영삼)는 28일 '제79주년 교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교도소 주변과 이전 예정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 봉사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위문활동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전주교도소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아래 교도소 인근지역이자 교도소 신축 이전 예정지역인 작지마을 일대를 대상으로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도작업 제품인 화장지를 전달하는 등 위문 활동을 펼쳐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안영삼 소장은 "이번 행사는 교정의 날을 뜻깊게 보내기 위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교정공무원이 나눔·봉사 문화 확산에 솔선수범 참여하였다"고 밝혔으며, "전주교도소 직원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펼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정의 날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 10월 28일 일제로부터 교정행정 전반을 인수 받은 날을 기념하여 제정되어 올해로 79주년이 되었다.

교정의 날은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어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교정행정 발전과 수용자 교정교화에 헌신한 교정위원들



에게 훈장 등 각종 상훈을 수여하고 있기도 하다.

수용자와 직원, 교정위원들과 함께 각종 문예작품과 교도작업 제품을 응모하여 표창하여 수진된 작품을 모아서 교정작품전시회를 열고 전시된 물품 판매 등으로 전 국민에게 교정행정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있기도 하다. 또한, 수용자, 직원, 교정위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문예작품을 모집하여 시상하는 등 교정행정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올해에는 최초로 교정작품전시회가 이북 전주 박물관에서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열려 많은 시민들이 전시회를 찾아 관람하고 50여 점의 작품을 판매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 /이만호 기자

정읍교육지원청, 2024 진로진학박람회 개최

다양한 직업체험 통한 진로 탐색·진로진학 상담... 총 80개 부스 운영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용훈)이 지난 26일 학산중학교에서 정읍 관내 유아, 초·중·고등학생, 학부모, 지역민 등 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읍 진로진학박람회를 개최했다.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한 진로탐색 및 진로진학상담과 입시제도 이해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자 열린 이번 진로진학박람회는 규모와 내용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고등학교 별 교육과정 부스 10개, 대학 학과 체험 부스 13개, 진로직업체험 부스 10개, 지역의 마을체험처 부스 13개, 에듀테크 및 과학발명 체험 부스 12개, 진로상담부스 4개, 대입제도 개편안 및 고교학점제이해 부스 12개, 1:1 대입 대면상담 부스 4개, 학생 공연 한마당의 총 80개의 부스가 운영되었다.

특히 1:1 대입 대면상담, 2028 대입제도 개편안 및 고교학점제 이해 및 진로상담의 진학 관련 부스를 강당에서 별도로 운영하여 차분하고 편안하게 물담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학생 및 학부모들이 진학상담에 집중할 수 있었다.

중학생들은 전북은라인학교 및 관내 고등학교 별 교육과정 안내 부스에서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직접 체험해보았고, 유아와 초등학생들은 다양한 직업체험 및 과학발명체험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참가한 한 학생은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 고교학점제 및 변화하는 대학 입시제도 등 다양한 진학정보를 직접 보고 들어서 진학설계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만족을 표시했다.

최용훈 교육장은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진로탐색 기회와 진로진학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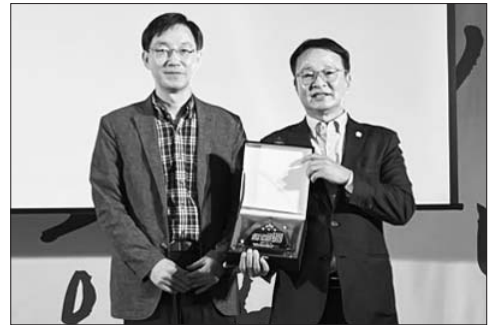


읍지역 학생들이 진로 및 진학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자원봉사센터-행복드림가족봉사단, 연탄 봉사활동

김제시는 김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와 행복드림가족봉사단(회장 김경순)이 지난 26일, 자원봉사자 15명과 함께 신흥동 도장마을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자들은 모두의 손을 모아 총 300정의 연탄을 전달하면서 따뜻한 온기를 함께 전달했다.

이번 활동은 가족 단위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한 행사로, 앞으로도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를 돕고 지원할 예정이다. /김제=곽태 기자



김재원 완주군의회 부의장, 전북하이텍고 공로패

완주군의회 김재원 부의장이 지난 25일 전북하이텍고등학교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 부의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박종광 전문관, 하이텍고 송현진 교장 및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부의장은 지역사회 발전 및 전북하이텍고의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직업 교육 활성화와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김 부의장은 지역 사회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지역 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역량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추진해 왔으며, 지역 청소년들의 권리 보호와 복지 확충을 위해 꾸준히 헌신해 왔다. /완주=염재복 기자



남원 왕정동 발전협, 효(孝) 경로잔치 개최

남원시 왕정동 발전협의회(회장 박상연)는 2024년 왕정동 어르신 효(孝) 경로잔치를 지난 25일 금요일 왕정동 게이트볼장에서 만 75세 이상 어르신 3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동 발전협의회 주최로 동 행정복지센터,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자율방범대, 수호천사 봉사회 등 동 사회단체가 후원했다.

기념식에서는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 및 다과와 왕정동 농악단, 자치사랑방 수강생 공연, 전문 가수 공연 등이 진행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금지면 등, 손모아 재능기부 요리 프로그램 진행

남원시 금지면 행정복지센터는 남원시사회복지과과 협력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람과 나눔의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손모아' 재능기부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연 3회 추진 예정으로 지난 10월 25일 2회차를 진행했으며, 요리는 돌봄서비스 이용 대상 어르신 중 요리 활동에 관심이 있는 어르신과 진행하였으며,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과 함께 식사로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강사가 복지관 관장은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적절한 요리 제공으로 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할 수 있어서 기쁘다. 다양한 재능 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이백면·가운누리 봉사회 등, 이동빨래방 운영



남원시 이백면(면장 안동준)과 대한적십자사 남원지구협회 가운누리 가족봉사회(회장 김희만)는 지난 27일 남평마을회관 일원에서 이동빨래방을 운영했다.

이날 운영한 이동 빨래방은 1일 1가구 발급대상자 등 약 50가구를 대상으로 평소 혼자서 세탁하기 힘든 침구류 등을 위주로 진행했고, 가운누리 가족봉사회와 더불어 이백면장, 맞춤형복지팀이 봉사를 진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최신철(전북대학교 홍보실 행정실장) 부친상= 별세
일: 28일, 빈소: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30일
오전 6시, 장지: 무주군 안성면 선영, 연락처: 010-9955-1776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8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일일지사 010-9642-2725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삼천지사 632-2404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010-2333-4791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수지사 010-3682-6157
서신지사 272-941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호지지사 010-8645-9835 익산지사 868-9823 고창지사 563-68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